

송파구, 장애인 치과치료 무료 지원...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장애인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치과 진료부터 보철치료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를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가락동에 거주하는 A씨(만 49세, 남)는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중장년 의료수급자 1인 가구로 교통사고로 뒤통이 모두 빠지고 아내 앞니 7개가 없어 온전한 저작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보철치료 사업으로 상악 전체 틀니와 하악 브릿지 치료 서비스를 받아 현재는 치아를 사용해 식사가 가능할 정도로 저작 기능을 회복했다.

송파구보건소는 2010년부터 송파구 치과의사회 봉사팀(송정화)과 협력해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 스스로 구강 위생을 관리하기 어렵거나 치과 내원이 쉽지 않은 장애인에게 정기 구강 검진과 맞춤형 치과 진료를 제공해 장애인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를 갖추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까지 편리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407회 12,608명 장애인이 검진, 잇몸·충치·신경치료 및 발치 등의 진료 혜택을 받았다.

2023년부터는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틀니, 브릿지, 크라운 등 치료비용이 높은 보철치료도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91건의 보철치료를 실시했으며, 장애인들의 저작 운동 기능을 회복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보철치료 대상은 송파구 거주 의료수급자 등록 장애인으로 치과 검진 후 송파구 치과의사회 소견을 거쳐,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관련 문의 및 사전 예약은 송파구 보건지소 구강보건실로 하면 된다.

영등포구, '지역 아동, 청소년 위한 K-컬처 활성화'업무협약 체결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LOVE FNC와 함께 '지역 아동·청소년의 K-컬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인프라와 역량을 연계해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지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이다. LOVE FNC는 FNC엔터테인먼트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국내외 아동과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사업 총괄과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남부교육청은 교육 장소 제공과 학생 모집을, LOVE FNC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전문 강사 지원 등을 맡는다.

협약의 첫 사업으로 11월부터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등포 K-pop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K-pop 댄스를 중심으로 한 실기 교육을 통해 참가 학생들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는 이번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한

국 대중문화 기반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폭넓은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활동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 지역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 모델을 확대해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하수관 이음부·접합부 손상 44%, 지반침하 예방

10년간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중 하수관 이음부·접합부 손상 44%...핵심 원인 선제 보수

본관 이음부 수밀성·지지력 강화하고, 연결관 접합부 '일체형 단지관'으로 국소 단위 정밀보수



서울시는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가운데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수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해 부등침하를 억제한다.

이는 이적·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空洞)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국소 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해 공사 범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인다.

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개인배수설비 협의 조건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확산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장에서 시공성, 비용, 성능 개선 효과를 입체적으로 비교·검증해 보완점을 도출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결합 항목별 맞춤형 정비 원칙도 구체화한다. 동일한 '누수·침하' 현상이라도 원인이 이음부 수밀성 저하인지, 기초 지지력 부족인지, 연결관 접합부

파손인지에 따라 정비 방식과 범위를 다르게 적용해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하수관로 정비 방향을 '덜 파고, 더 오래 가는' 정비로 전환해나간다. 지반 교란을 최소화하며 관로 기능을 유지·회복하는 보수(Repair)를 확대하고, 필요시 내부에 새로운 관을 구축해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갱신(Renovation), 마지막으로 노후·손상 정도가 심한 구간은 전면교체(Replacement)를 선택하는 단계적 전략을 정립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음부와 접합부의 근본적인 개선은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의 지름길"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출발점으로 실효성 있는 신규 공법을 개발하고, 노후관로 관리의 패러다임을 '대규모 교체'에서 '원인별 맞춤형 정비'로 전환해 하수관로 평생 주기(Life-Cycle) 관리 비용을 낮추는 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하수 인프라 관리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성북구보건소, 질병관리청장상 수상...결핵 관리 성과 인정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보건소가 11월 4일 질병관리청 주관 '2025년 민간·공공 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접촉자 조사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국 250여 개 보건소 중 8개 기관만이 선정됐으며, 성북구보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11월 4일 서울드래곤시티 컨벤션타워에

서 열렸으며, 성북구보건소는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성북구보건소는 가족접촉자 검진율, 잠복결핵 치료 시작률 및 치료 완료율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결핵 환자의 가족과 주변 접촉자들이 조기에 검진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담당자들의 노

력,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룬 결과"라며 "가족접촉자 조사를 통해 결핵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북구보건소는 앞으로도 결핵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무료로 결핵 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결핵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을 방점이다.

서울시, 장애 동행 치과 60개소 스마트서울맵 표출

손목닥터 9988 앱 배너 통해서도 확인 가능...25개 자치구 60개소 정보 한눈에

이제 장애인의 치료가 가능한 치과를 일일이 전화하거나 수소문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 위치와 진료 정보를 이달부터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 도시생활지도에 표출, 가까운 치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장애 동행 치과'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기본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뇌병변, 뇌전증, 지적·지체·정신·자폐성 장애 등 치과영역 6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같은 예방진료부터 충치·치주치료, 발치 등 기본 진료까지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 기관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현장 조사 및 기존 중증 여부를 검토해 지정 기관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장애 동행 치과' 41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2차 모집을 통해 25개 자치구 전역에 총 60개소로 확대했다.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위치 정보를 디지털 지도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 없이 가까운 치과를 직접 비교·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지도 서비스는 접근성과 맞춤형



장애 동행 치과 현판



장애 동행 치과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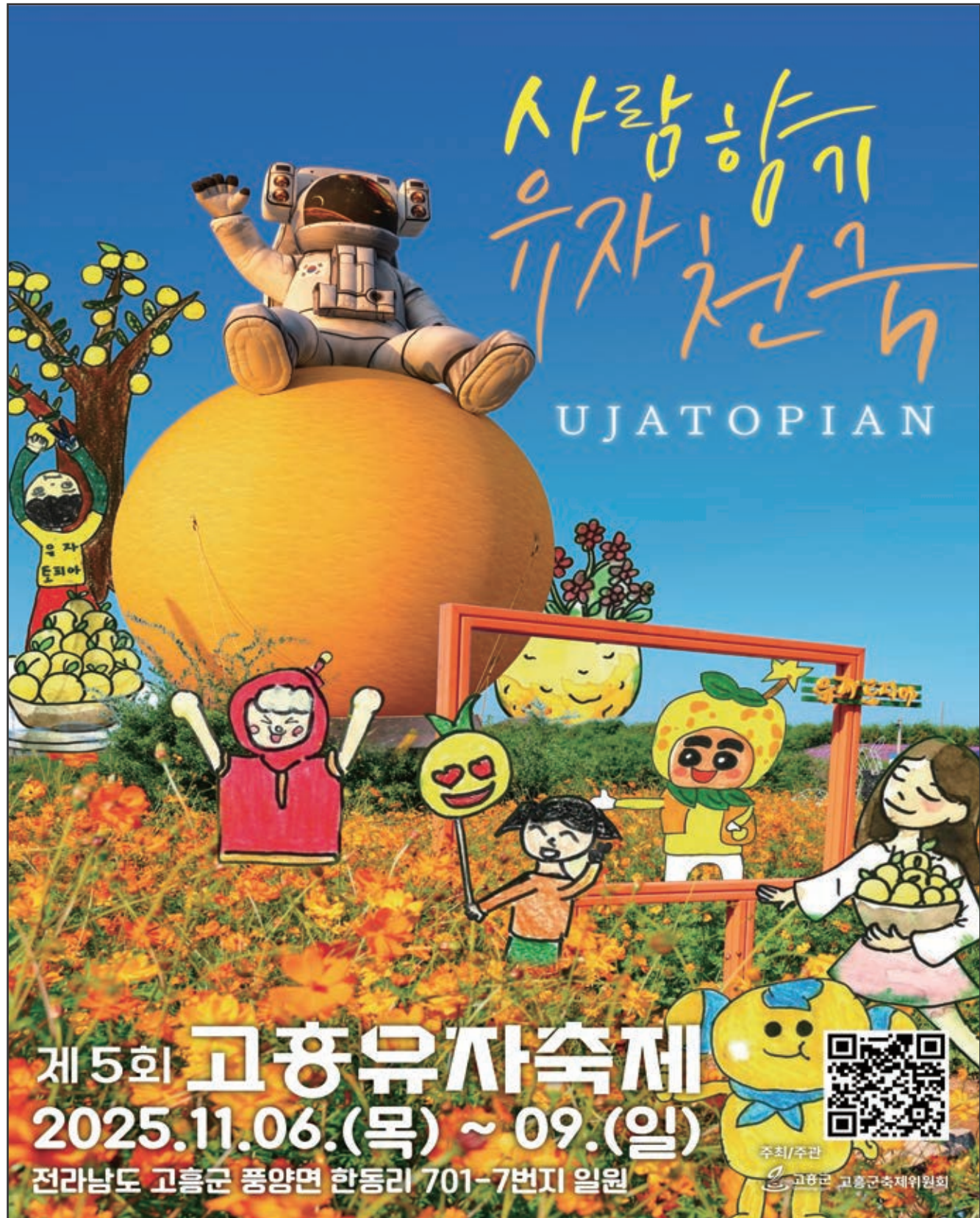
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 이용자는 '내 주변' 검색으로 가까운 기관을 확인하고, 장애유형, 행동조절 방식, 연령대 등 필터 기능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과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웹 화면에서 검색만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다. 시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다양하게 연계해 시민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서울맵을 중심으로, 손목닥터9988 앱, 서울시 누리집과 블로그, 서울시치과의사회·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 유관기관 SNS와 배너를 통해 지속 홍보한다.

자치구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 관련 시설에 리플렛과 안내물을 비치해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며, 자치구 소식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실시간 문의가 필요한 시민은 120 다산콜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이번 스마트서울맵 서비스는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치과병·의원 네트워크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선유도공원서 국립현대미술관 협력전시 '우리의 자연, 우리의 시선'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중 '자연'을 주제로 한 회화, 조각, 영상 등 50여점 전시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선유도공원 선유도이야기관에서 1개월간 무료 관람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협력전시 《우리의 자연, 우리의 시선》을 11월 7일(금)부터 12월 7일(일)까지 선유도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수장이었던 선유도공원은 서울의 대표 재생 생태공원이자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산업의 흔적과 생명의 회복이 공존하는 장소적 특성을 지닌다. 이번 협력전은 이러한 선유도공원의 장소성을 반영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공존의 의미를 탐색한다.

《우리의 자연, 우리의 시선》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중 '자연'을 주제로 한 회화, 조각, 영상 등 40여

점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은행 소장품 40여점을 무상 대여하고 작품운송, 설치 등을 지원하였다. 선별된 작품을 통해 시민들은 작가의 시선으로 표현된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탐구하고 인식할 수 있다.

전시가 열리는 '선유도이야기관'은 과거 정수장의 침전지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전시공간으로, 산업시설의 흔적과 자연의 재생이 공존하는 선유도공원의 상징적 장소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과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어우러져, 도심 속에서 자연과 예술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선유도이야기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한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객의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전시 투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의 자연, 우리의 시선》전시 관람 정보는 정원도시 서울(서울의 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영여가과(☎02-300-5567)로 문의하면 된다.

선유도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의 협력으로 시민들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예술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뜻 깊다"며 "이번 전시가 자연의 가치와 공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